*영어어문교육, 14*권 **4**호 **2008**년 겨울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의 코퍼스 언어학적 어휘 비교 분석*

김 낙 복
(나사렛대학교)

Kim, Nahk Bohk. (2008). A corpus-based lexical analysis of the foreign language (English) test for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4*(4), 201-2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corpus-based analysis of the lexical characteristics of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conducted through reading and listening tests administered over the last eight years. The study focuses on the following elements: tokens, types, TTR (Type/Token Ratio), high frequency words, and collocational pairings. A corpus is built from each test, then analyzed using the NLPTools software program, resulting in several observations. First, although the TTRs of each CSAT test are similar, the tokens and types are somewhat different. Second, while the top high frequency words of the CSAT correspond with the twelve textbooks in the 7th Curriculum, CSAT tokens, types, and TTRs do not. Moreover, an analysis of the high frequency delexicalized words (such as *have, take, make, and do*) reveals that students cannot fully use collocational pairs effectively because of the lack of reflection and explanation in a textbook. The study concludes with some suggestions to help students better comprehend lexical chunks, specifically the need for the collocational approach based o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urriculum's lexicon.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lexical analysis/lexical chunks/collocational pairs, 대학수학능력시험/어휘 분석/어휘적 뭉칫말/연어쌍]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현재 한국의 영어교육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 본 연구는 2008학년도 나사렛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하 수능)과 TOEIC[1] 일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 번에 응시자가 다른 시험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이 두 시험의 공통적인 특징은 언어의 네 기능 중 주로 듣기와 읽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은 지금까지 우리의 영어교육 현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대학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3 년 동안 수능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고등학교 때 영어 학습 자료는 교과서와 수능형 문제를 다룬 보충교재였을 것이다. 교과서의 듣기, 읽기의 상당부분은 수능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연습문제나 확인학습란도 수능의 문제형식이고, 더욱이 정기 시험(중간, 기말고사)에도 수능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고등학교 영어교육 전반이 수능의 영향아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실시간 의사소통(real time communication) 시대에는 현행 교육과정의 교과서나 수능과는 달리 언어 기능 중 표현기능인 말하기와 쓰기 능력이 더욱 요청된다. 권오량 외 4 인(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EFL 상황이라지만 영어 이해(듣기, 읽기)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표현(말하기, 쓰기) 능력은 많이 미흡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수능에서도 이해 활동에 비해 표현 활동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받고 있다(최종욱, 2000). 그 이유는 자명한 것 같다. 영어학습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할 수 있는 중등학교에서 지금까지의 영어교육이 주로 읽기와 듣기 중심이었다. 이 시기의 학습 방법은 그 이후의 영어 학습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보여진다.

이제 교육 현장 상황은 점차 말하기와 쓰기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그리고 말하기와 쓰기의 기초는 읽기 듣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어휘력이다. 풍부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은 성공적인 말하기 쓰기의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서 어휘력은 단순하게 개별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단어가 함께 어울려 어휘 궁합으로 뭉칫말을 구성하는 연어 능력(collocation competence)[2]을 말한다. 최근의 연구 결과, 연어 능력은 어휘력 발달뿐만 아니라 독해력 향상 등 영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김낙복, 2007; 현태덕, 2007; Kim, 2003; Kim & Yoon, 2008; Lee & Kim, 2005) 점차 영어 교수 학습 활동의 핵심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한편, 대학에 들어온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능 시험을 보았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시절에 실제 수능과 비슷한 모의시험을 수 차례 보았을 것이다.

---

[1] TOEIC시험의 구성은 듣기와 읽기로 실시되어 오다가 2006년 12월부터 TOEIC Speaking and Writing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2008년 10월 현재 23회째 시험으로 실시간 의사소통 시대에 말하기와 쓰기의 기능이 절실하다는 점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코퍼스 분석 결과, 언어의 이해와 생성에 있어 독립된 단어보다 단어의 결합, 즉 연어 역할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언어를 훌륭하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연어 사용에 익숙해야 한다. 연어 능력의 부족은 학습자로 하여금 말하고 쓰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게 하며, 소위 문법적 오류를 가져오기 쉽다. 따라서, 우리의 사고에 있어 의사소통능력이라는 개념과 같이 연어 능력이라는 개념에 친숙해져야 한다. 즉, 언어의 어휘적 특성과 어휘적 결합 방식에 익숙함으로써 보다 자연스럽고 영어다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그 특성과 방식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이 연어이다" (김낙복, 2005, p. 67).

따라서, 수능은 우리나라 영어 교육 현장과 학습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험임에 분명하다. 또한, 그와 같은 수능을 통해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의 상당수는 자신들의 영어 능력 시험으로 TOEIC 을 보는 경우가 많다. 어느 시험이든 평가 및 성취 기준이 완벽할 수가 없기에 비판을 받을 소지는 있다. 수능이나 TOEIC 도 매년 혹은 매달 문제의 난이도나 성취도 차이 등으로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두 시험만큼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출제되는 시험도 없기에 다른 일반 시험에 비해 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 영어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능 외국어영역(2001-2008 학년도 영어)의 코퍼스 언어학적 어휘 비교로, 구현, 유형, 어휘 반복율, 고빈도 단어, 연어관계의 분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영어 어휘 교육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8 개년간의 수능 읽기와 듣기 코퍼스의 구현, 유형, 그리고 어휘 반복율을 연도별, 영역별로 비교 분석한다.

둘째, 수능 읽기 코퍼스의 명사, 동사, 형용사의 고빈도와 제 7 차 교육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12 종의 교과서 코퍼스와 비교 분석한다.

셋째, 탈어휘화된 동사의 연어관계를 Oxford 연어 사전과 수능 텍스트에서 추출한 연어와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수능 형태의 시험을 통해 들어온 대학생들의 바람직한 영어 어휘 교수 학습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코퍼스와 어휘 연구

코퍼스(corpus, 말뭉치)를 이용한 언어 연구는 실제 언어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 자료 뿐만 아니라, 특정 자료의 대용량의 언어 자료를 양적으로 특정한 통계적 수치를 얻을 수 있고 자료간 비교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코퍼스 이전에 언어 연구자의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한다거나 소량의 언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코퍼스의 종류는 사용목적, 크기, 제작시기, 매체 등에 따라 구분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나, 언어 교육에서는 주로 BNC(British National Corpus), ANC(American National Corpus), BE(The Bank of English)와 같이 1 억 단어 이상의 크기로 음성언어와 문자언어 코퍼스, 또는 MAELC (Multimedia Adult ESL Learner Corpus)처럼 텍스트가 음성이나 동영상과 합쳐진 멀티미디어 코퍼스를 모두 포함한다.[2] 이와 같은

[2] 대표적인 코퍼스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
· BNC: http://corpus.byu.edu/bnc/ or http://info.ox.ac.uk/bnc/index.html
· ANC: http:www.americannationalcorpus.org/

대용량의 언어 자료를 분석 가능하게 한 것은 오랜 기간의 코퍼스 구축과 현대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코퍼스 프로그램의 개발 덕택이다.

현대 언어학 입장에서 McEnery 와 Wilson(2001)은 코퍼스의 의미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말이나 글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전자화된 자료로 확대하여 받아들임으로써 단순히 말이나 글을 모은 언어 자료라는 그 동안의 일반적인 정의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코퍼스의 주된 연구 영역은 어휘, 문법, 의미, 언어 습득과 같은 언어 일반 연구는 물론, 코퍼스 구축 및 코퍼스 분석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코퍼스 분석 결과 처리를 위한 통계와 같은 코퍼스 자체를 위한 자료와 도구 개발도 포함한다(김성식, 2007). 특히, 코퍼스를 활용한 자료 분석 및 관련 도구 개발은 실증적 객관적 자료와 정보를 중시하는 최근에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언어학, 응용 언어학 뿐만 아니라 외국어 교육의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그 연구 분야를 확장, 발전시키고 있다(이은주, 2008).

또한, 언어 교육에서의 코퍼스 활용은 Carter(1998)가 주장한 바와 같이, 언어 교육에서 어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코퍼스 언어학적 방법이 단어의 빈도,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등 다양한 분야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BNC, ANC, BE 와 같이 대용량의 전산화된 코퍼스를 바탕으로 특정 단어의 빈도(frequency)와 콘코던스(concordance)[3], 그리고 특정 단어의 전후에 결합하는 단어의 특성인 연어(collocation) 정보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코퍼스 정보는 전통적인 언어학자의 직관으로가 아닌 실제 언어 사용 자료를 분석하여 해당 언어 현상을 밝혀주기 때문에 어휘 연구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

한편, 그 동안 국내에서의 코퍼스를 활용한 어휘 연구는 주로 교과서의 어휘 분석(권인숙, 2002, 2004; 김보영, 2008; 김성식, 2003; 김지영, 2006; Kim, 2004)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 Kim 과 Chun(2008)은 2 주간에 걸쳐 대학생 48 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코퍼스를 기반한 DDL(Data-Driven Learning)이 학습자의 영어 어휘와 문법에 대한 인식(awareness) 및 어휘 지식(lexical knowledge)을 크게 발달시켜 주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다양한 연어에 대한 인식을 크게 향상시켜 줌으로써 어휘 학습 통제와 자신감을 높여주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연어가 상당부분 문법까지 커버해주고 있으며 어휘의 다의성을 이해하는데 용이하게 해준다는 점을 입증해 주고 있다(Kim, 2008).

· Bank of English Corpus: http://titania.cobuild.collins.co.uk/boe_info.html
· MICASE: http://quod.lib.umich.edu/m/micase/
· MAELC: http:// www.labschool.pdx.edu/research/methods/maelc/intro.html

[3] 콘코던스는 낱말의 실제 쓰임을 나타낸 목록으로서 콘코던서(concordancer)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한 어휘 항목을 실제 글이나 말 속에서 사용된 문맥과 함께 목록의 형태로 보여준다. 핵(node)이 되는 낱말, 어구, 문장 등은 중앙에 오고 그 좌우에 함께 어울린 문맥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콘코던스를 통해 특정 어휘의 의미, 연어관계, 문법적 패턴, 다의어 용례, 관용적 표현 등의 실제 다양한 어휘 정보를 얻어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코퍼스를 분석하여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분야 중 하나는 사전편찬일 것이다. BBI Dictionary(1997), LTP Dictionary of Selected Collocations(1997), 그리고 Oxford Collocations Dictionary(2002)는 대표적인 코퍼스 분석을 반영한 연어 전용 사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BBI 와 Oxford 사전은 일반사전과 같이 알파벳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면서도 어떤 동사가 어떤 명사와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연어관계를 풍부한 예와 함께 보여주고 있다.

표 1

LTP 에서 명사 CAREER 와 결합하는 연어쌍의 예(Hill & Lewis, 1997, p. 11)

CAREER
V: abandon, be absorbed in, be destined for~ in, boost, carve out, change, choose, concentrate on, cripple, cut short, damage, determine, develop, devote oneself to, embark on, end, enter upon, further, give up, hamper, have a ~ in(banking), help, hinder, interrupt, launch out on, launch sb on, map out, plan, predict, promote, promote, pursue, put an end to, ruin, sacrifice, salvage, set sb off on, spoil, start, take up, wreck~
V: ~blossomed, has its ups and downs
A: amazing, brilliant, chequered, colourful, demanding, difficult, disappointing, distinguished, entire, fine, flourishing, glittering, golden, good, great, honourable, ill-fated, meteoric, modest, promising, splendid, steady, strange, successful, turbulent, unusual, varied~
P: outset of, peak of, pinnacle of, springboard for, summit of~, a ~change

LTP 는 표 1 처럼 다른 사전과 달리 명사를 표제어(headwords)로 하고 그 명사와 결합 가능한 동사, 형용사, 전치사를 연어쌍(collocation pairs)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연어 정보는 영어 말하기나 쓰기와 같은 표현능력을 기르는데 특히 유용하다. 또한, 최근에 출시되어 있는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LDOCE), MACMILLAN, CAMBRIDGE, OXFORD 등 대부분의 영영사전은 코퍼스를 반영하여 연어 정보를 굵은 글씨체로 눈에 잘 띄게 제시하여 주고 있다. 이는 연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친사용자(User-friendly) 중심의 사전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육과정과 수능 분석 연구

현행 수능은 교육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능체제는 의사소통 중심 영어 교육이 중점이었던 제 6 차 교육과정(1992~1999) 초인 1994 학년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변화 발전하여 왔다. 시행 초기에는 많은 사교육비 증가 우려와 현장의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한 불안도 있었으나 큰 틀에서 영어교육의 일대 혁신을 가져온 부분은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종합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된 현행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 즉 영어과 교육과정상 교육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고 대학에서 수학하는데 필요한 영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듣기평가시험과 다양한 형태의 독해 유형이 도입된 수능 시험은 시험 형태의 변화 뿐만 아니라 중등 영어교육을 크게 탈바꿈시켰으며, 이와 같이 변화된 환경의 교육과정과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들을 맞이하는 대학에서의 교양영어(실용영어) 교육과정도 이와 같은 변화를 수용하여 원어민 수업을 비롯한 다양한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 지원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수능 시험은 획기적인 영어교육의 역류 효과(washback)를 기대하며 1994 학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듣기가 포함되고 읽기에서 지문과 문항이 1:1 형식을 기본으로 하였다. 제 7 차 교육과정(2000~현재)에서는 변별력을 위한 문항들이 일부 포함되면서 수정 보완되어 현행대로 50 문항(듣기·말하기 17 문항, 읽기·쓰기 33 문항)으로 출제된 것은 2001 학년도 대학 입시 때 부터이다. 그 동안 8 년간 실시하면서 해마다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력 등으로 논란이 많았지만 수능만큼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험도 없을 것이기에 그 신뢰도에 있어서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교육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수능은 7 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한 단계 새롭게 변화 발전하였고, 그에 따른 수능 분석과 제언이 잇따랐다. 제 7 차 교육과정이 시작된 2000 학년도 이후 시행된 수능 분석[3] 은 문항 유형 분석(김미자, 2001; 이재희, 2001), 점수 요인 분석(성윤미, 2004), 읽기 난이도 분석(장경숙, 2004), 문항 난이도 분석(Jin & Park, 2004, 2005)등 주로 문항 형식과 난이도 및 변인들과의 상관관계에 연구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성윤미(2004)는 수능 영어의 점수 관련 요인 분석 연구에서 학습자의 문법 실력과 어휘력 변인들이 영어 점수와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반면에, 장경숙(2004)은 2002 학년도와 2003 학년도 수능 읽기 문항 66 문항을 분석한 결과, 난이도와 읽기 영역의 실제 오답율 간 상관관계에서 어휘 및 숙어 수준과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 이유로 문항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출제한 것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준일(2002)은 “학생들이 종합적인 의사소통의 기초인 어휘와 문법을 소홀히 해왔으며, 그 결과 대학에서 원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수능이 유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정확성을 희생시키는 결과(p. 136)”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수능의 여러 변인과 함께 어휘력의 변인 등은 중등교육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그러한 교육을 받고 대학에 들어온

[3] 그 동안 수능 분석은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시험 실시 후에 채점 결과 및 개별 문항에 대한 분석자료를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또한, 2000학년도 이전에 발표된 수능 분석 연구는 대부분 이론 연구이거나 당해 연도의 시험을 위주로 문항 반응 분석, 문항 유형 분석, 문항 정답율 분석 등이어서 본 논문에서는 고려하지 하지 않았다.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7 차 교육과정을 실시하면서 현행체제로 지금까지 8 회 수능이 치러지면서 이와 같이 영어학습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어휘면에 있어 아직까지 수능에 사용된 어휘 분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연구들은 주로 개별 수능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교과서 어휘 분석과 함께 이를 반영한 수능에서 사용된 어휘를 코퍼스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과연 제 7 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이를 실현한 수능과 어느 정도 어휘적 관계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과 범위

1994 학년도부터 수능이 도입되었으나 제 7 차 교육과정에 따라 문항 수가 현행과 같고 문제 유형이 비슷한 2001 학년도부터 2008 학년도까지 8 개년간의 수능 기출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수능의 현행 문항, 즉, 듣기·말하기 17 문항, 읽기·쓰기 33 문항 총 50 문항으로 출제된 것은 2001 학년도 수능부터이다. 따라서, 연구 범위는 2001 학년도부터 2008 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로 코퍼스 언어학적 어휘 비교 분석을 하고자 한다.

2. 분석 방법과 내용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2001-2008 학년도에 실시된 수능 기출문제를 듣기 영역과 읽기 영역으로 나누어 1)연도별, 2)영역별로 다음 3 가지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영역별, 연도별 수능 문제의 총 어절수인 구현 (total word token)과 총 어휘수인 유형(total word types)[4] 을 살펴보고, 영어 학습에서 중요한 내용어인 명사, 동사, 그리고 형용사의 품사별 고빈도(high frequency) 출현 어휘 20 개씩을 추출해보고 12 종 교과서의 고빈도 어휘와 비교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탈어휘화된 동사(do, make, have, take) 사용 정도를 연어적 분석을

[4] 언어 자료 분석의 기본 개념으로 어떤 항목의 분류, 즉, 각기 다른 단위를 유형이라 하며, 이 유형이 실현되어 나타난 것이 구현이라고 한다. 아래 예를 보면,

The ability to sympathize with others reflects **the** multiple nature **of**
the human being, his potentialities for many more selves and kinds **of**
experience than any one being could express (2008 수능 39번 중에서).

띄어 쓰기를 기준으로 각 항목을 단어로 보아 중복된 것(3개: the, of, being)을 제외한 각 단어들의 종류인 유형은 27가지이며, 유형이 실제로 실현되어 등장한 모든 단어들의 출현 횟수인 구현은 30가지이다. 즉, 총 어절수는 30어절이고, 총 어휘수는 27개이다.

통해 교과서의 내용과 비교하였다. 즉, 영어 문장에서 다양하게 노출되어 활용도가 높은 탈어휘화된 동사들의 연어관계를 살펴보고 교과서의 것과 비교 분석하였다.

3. 분석 도구와 절차

1) 분석 도구

표 2
NLPTools 의 코퍼스 분석 도구와 기능(이용훈, 2007, p.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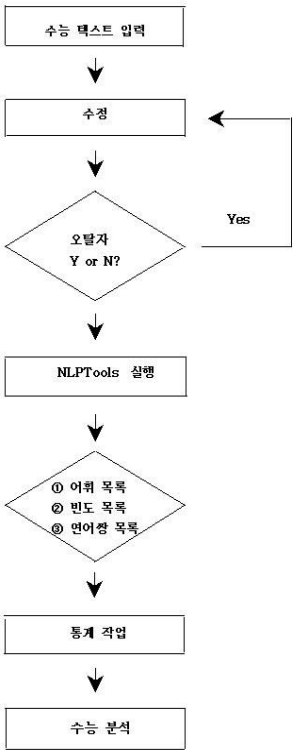
Tools	Description
Frequency Counter	Counter frequencies/statistics
Usage/Collocation Concordance	Collect usage and collocation
Grammar Usage	Collect the grammar usage for each tag
Concordance	Counter the number or sentences
Sentence Counter	Make a wordlist from a text file
Wordlist Maker	Compare two wordlists
Wordlist Comparer	

프로그램의 각 분석 도구와 기능은 표 2 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코퍼스 분석 프로그램으로 NLPTools(이용훈, 2007)를 사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빈도수 측정기(Frequency Counter)를 통해 주어진 텍스트 내에 나오는 모든 어휘들의 출현 빈도수를 측정함으로써 고빈도의 어휘를 품사별로 알아볼 수 있게 해주며, 텍스트의 총 어절수인 구현과 총 어휘수인 유형같은 기본적인 통계값을 제공해준다. 또한, 연어나 용례 검색기(Collocation/Usage Concordance)를 활용하여 기준단어(nord word)에 대한 연어를 검색하여 준다.

2) 분석 절차

본 연구의 분석 절차는 먼저 2001-2008 학년도에 실시된 수능 문제의 코퍼스를 구축하고 각 연도별, 전체의 텍스트를 컴퓨터에 입력과 수정을 거친 후, 텍스트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어 연구 내용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 그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코퍼스 언어학적 방법을 통한 수능 분석 절차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8 년간 실시된 수능 코퍼스의 구현으로 총 어절수를, 유형으로 총 어휘수를 연도별로 측정하였다. 수능 코퍼스의 구현과 유형은 NLPTools 의 빈도수 측정기로 측정하였다. 또한 빈도기 측정기로 수능 코퍼스에 나오는 모든 어휘의 빈도 목록을 작성하여 고빈도 단어로 내용어인 명사, 동사, 형용사를 추출하여 7 차 교육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12 종의 교과서 코퍼스의 내용어인 명사, 동사, 형용사와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Crowther, Dignen 와 Lea 의 Oxford 연어 사전(2002, P. S10)에서 표 7 과 같이 탈어휘화된 동사(delexicalized verbs)[5] 의 연어로 do, make, have, take 를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능에서 이

[5] 특정 문맥 밖에서는 거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면서 많은 다단어 표현(multi-word expressions)의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는 동사로, 어휘부(lexicon)의 단어라기보다 어휘-문법의 일부로 생각되는 동사를 말한다. 주요 동사로는 do, get, give, have, keep, look, make, put, take 등이 있다(Lewis, 1997). Oxford 연어 사전에는 do, make, have, take 동사 이외에

동사들의 연어관계를 조사하고 12 종의 교과서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동사들의 연어관계와 비교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구현, 유형, 어휘 반복율 규모

표 3
8 개년간 수능 문제 읽기 코퍼스의 구현, 유형, 어휘 반복율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구현	3076	3348	3459	3603	3861	3892	3891	4104	29234
유형	1071	1165	1162	1204	1399	1436	1432	1457	5099
어휘 반복율	34.82	34.80	33.60	33.42	36.23	36.90	36.80	35.50	17.44

총 어절수인 구현은 학습량을 나타내는 한 지표이다. 즉, 구현이 많다는 것은 학습량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능 2001 학년도에서 2008 학년도까지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쉬웠던 2001 학년도의 구현수가 3,076 개로 가장 적었으며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2008 학년도 수능은 4,104 개로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난이도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학습자 측면에서 정해진 시간에 풀어야 하는 시험인 경우 어절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어휘 반복율인 TTR(Type/Token Ratio)은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음을 표 3 은 보여주고 있다. 즉, 2006 학년도의 36.90 에서 2004 학년도의 33.42 까지 분포되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주어진 시험 지문에서 어휘 반복율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듣기에 있어서는 읽기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쉬웠던 2001 학년도 구현이 1,635 개로 다른 해에 비해 훨씬 적었던 반면에, 2006 학년도에는 2,272 개로 총 어절수가 가장 많았음을 아래 표 4 는 보여주고 있다. 총 어휘수인 유형에 있어서도 대체로 해가 거듭될수록 어휘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어휘 반복율에 있어서는 읽기가 36.90 에서 33.42 인데 반해, 듣기는 32.87 에서 27.60 로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어체보다 구어체가 어휘 반복율이 많으리라는 예상을 입증해주고 있다.

---

give동사가 포함되었으나 여기에서는 give 동사가 교과서 코퍼스의 고빈도 20개에 들지 않아 제외하였다.

표 4
8 개년간 수능 문제 듣기의 구현, 유형, 어휘 반복율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구현	1635	1883	1825	1992	2039	2272	2099	2187	15932
유형	484	581	531	581	626	627	690	704	2232
어휘 반복율	29.60	30.86	29.10	29.17	30.70	27.60	32.87	32.19	14.01

표 5
12종 영어교과서 코퍼스의 구현, 유형, 어휘 반복율[6]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체
구현	9938	8116	8143	6957	7648	7077	11103	8994	6434	9347	7802	5180	95477
유형	2158	1900	1974	1753	1993	1763	2599	2036	1919	2151	2075	1578	7332
어휘 반복율	21.71	23.41	24.24	25.20	26.10	24.91	23.41	22.64	29.83	23.01	26.60	30.46	7.68

표 5 는 제 7 차 교육과정에서 사용중인 12 종의 교과서 코퍼스의 구현, 유형, 그리고 어휘 반복율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제 7 차 교육과정에 사용중인 교과서의 구현과 유형 차이가 교과서마다 큼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앞으로 교과서 검정 시 어휘 검색을 통해 어휘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Kim, 2004).

다음으로 영어 내용어인 명사, 동사, 형용사의 고빈도 20 개를 제 7 차 교육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12 종의 교과서 코퍼스에서 추출한 것과 수능 코퍼스를 비교하였다. 명사인 경우 상위 10 개 중에서 7 개가 양 코퍼스에서 함께 추출되었다. 이처럼 고빈도 단어인 경우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다양한 어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동사인 경우 상위 10 개 중에서 6 개인 make, have, know, get, see, use 가 추출되었다. 특히 Oxford 연어 사전에서 언급한 탈어휘된 동사인 make, have, take, do, give 중에서 12 종 교과서에서는 do 와 give 가, 수능 코퍼스에서는 give 만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용사인 경우, 상위 10 개 중 6 개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상위 5 개는 두 코퍼스가 거의 같음을 표 6 은 보여주고 있다.

[6] 12종 교과서 코퍼스의 구형, 유형, 어휘 반복율은 Kim(2004, p. 52)의 분석에 전체부분을 추가한 것이며, 어휘 반복율=(유형÷구현)×100이며 연도별 수능 코퍼스나 각 교과서 코퍼스는 새로운 유형이 낮은 비율로 증가하나, 전체인 경우에는 텍스트가 커지면서 구현이 계속 증가하여 어휘 반복율이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6
읽기 코퍼스의 명사, 동사, 형용사 최빈도 단어 20 개

No.	명사		동사		형용사	
	12 종 교과서	수능	12 종 교과서	수능	12 종 교과서	수능
1	people	people	say	have	good	good
2	time	time	make	do	new	new
3	day	life	think	like	different	different
4	English	children	have	know	important	long
5	world	school	know	work	great	important
6	school	year(s)	go	see	old	Korean
7	way	way	get	get	high	high
8	thing(s)	day	want	feel	young	old
9	year(s)	thing(s)	see	use	long	small
10	lesson	music	use	make	special	right
11	man	light	help	need	big	great
12	Korea	food	take	think	poor	social
13	life	number	like	go	small	hard
14	animal(s)	example	need	take	Korean	modern
15	student(s)	student	learn	find	famous	able
16	friend(s)	person	find	become	able	true
17	father	age	come	say	popular	popular
18	language	information	look	play	beautiful	large
19	internet	water	ask	live	fast	sure
20	future	something	let	come	rich	successful

이제 수능과 교과서 코퍼스에서 연어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Oxford 연어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탈어휘화된 동사 중에서 수능 코퍼스와 교과서 코퍼스의 고빈도 20 개에 들어 있지 않은 give 를 제외한 do, make, have, take 동사의 연어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7 은 빈번하게 사용하는 영어 동사+명사의 연어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7
탈어휘화된 동사의 연어관계(Crowther 외 2 인, 2002, P. S10)

do	make	have	take
a crossword	an appointment	an accident	action
damage	an attempt	an argument	a bath
a degree	the bed	a bath	a bite
the dishes	a cake	a break	a break

an exam	changes	breakfast	the bus
the food for a party	a decision	cancer	a decision
	dinner	a chat	a deep breath
French at school	an effort	a cold	sb's details
the garden	a film	difficulty	a dislike to sb
your hair	a fuss	a drink	an exam
'Hamlet'	a guess	a feeling	a guess
your homework	an impression	fun	a holiday
judo	a mark	a guess	an interest in sth
miles per hour	a mess	a heart attack	a look
nothing	a mistake	a holiday	a nap
Paris	money	an idea	notes
a photocopy	a noise	an interest	a photo
research	peace	a look	size 10
a sketch	a photography	a meeting	a tablet
a translation	progress	a party	sb's temperature
the washing	a promise	a nap	a walk
some writing	a sketch	an operation	
	a speech	patience	
	a suggestion	problems	
	your will	a shock	
		a snack	
		time	

표 7 에서 나타난 동사+명사의 연어 관계는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즉, 손해를 입히다(do damage), 학위를 취득하다(do a degree), 약속을 하다(make an appointment), 실수를 하다(make a mistake), 사고를 당하다(have an accident), 감기에 걸리다(have a cold), 행동을 취하다(take action), 시험을 보다(take an exam) 처럼 우리말(L1)과 영어(L2)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학습자는 L1 연어 때문에 L2 의 연어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다(Kim, 2003). 그러나, 연어의 핵심은 연어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뭉칫말로 자주 사용하여 익숙하게 되는 데 있다. 아래 표 8 은 12 종 교과서 코퍼스에서 do, make, have, 그리고 take 동사의 연어관계를 추출한 것이다. 표 7 과 표 8 를 비교해보면서 우리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표 8 은 개별 교과서 코퍼스가 아닌 12 종 교과서 전체의 읽기 코퍼스에서 추출한 연어이다.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연어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교사는 표 8 과 같이 교과서 코퍼스에서 추출한 연어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면서 짝 활동이나 그룹활동을 통해 연어 결합 방식에 익숙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표 8
12 종 교과서 동사의 연어관계

do	make	have	take
Taegwondo	mistakes	a seat	a look at
some calculations	eye contact	a break	advantage of
~ good	reservations	a goal	responsibility
one's best	sure	a great time	part in
a lot of reading	a study schedule	an effect on	pleasure in
one's homework	another call	a sharp pain	photos
the dishes	fun of	a lot of trouble	an example
a role play	the change	snack	a course
tricks	a difference	an opportunity	a train
housework	a list	a chance	up their positions
voluntary service	noise	a good piece of advice	measures
research	a surname	great freedom	the blame for Place
the shopping	a promise	friends	the first step
many other things	a lot of noises	fun	one's order
one's part	a telephone	a look at	the shuttle bus
	one's decision	difficulty surviving	out money
	it	conversations	first place
	predictions	a dream/dreams	any breaks
	steady efforts	a positive attitude	painkillers
	friends	a headache	it easy
	up for lost time	a phone	off every hour
	happy memories	meals	up so little time
	noise	no choice	French
	a trip	babies	off one's shoes
	one's lives		at least 56 hours
	guesses		a shower
	a quick stop		action
	notes		the exam
	room for humans		money out of an account
	wise choices		much effort
	resolutions		off one's shoes
	a living		on a more prominent role
	contributions		

그러나, 교과서 코퍼스의 연어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교사는 표 7 과 같이 연어 사전 등에서 추출한 연어관계 자료를 보충적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연어 인식도를 높여 결국 어휘 결합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언어 사용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 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능 읽기 코퍼스에서는 연어를 많이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4 와 표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과서 코퍼스의 구현이 95,477, 수능 코퍼스 구현이 29,234 로 큰 차이가 있는 것도 그 차이를 보이는 이유일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는 구어체를 제외한 문어체만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표 7 과 표 8, 표 9 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수능 코퍼스의 한계점은 110 단어 내외의 짧은 지문 하나에 한 문제가 출제되는

1:1 형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어휘면에서 보더라도 학생들이 풍부하고 적절한 어휘력을 통해 다양한 읽기를 연습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시험을 출제하는 경우 어휘 사용은 같거나 비슷한 어휘를 반복하기 보다는 어휘적 뭉칫말이 풍부하고 텍스트마다 어휘적 응집성(lexical cohesion)이 고려되어야 한다.

표 9
수능 동사의 연어관계

do	make	have	take
one's best	a list	experience	some examples
things/nothing	too much noise	an effect	into consideration
mathematics	progress	a price tag	a good care of
a good job	observations	difficult –ing	a step
group thinking	demands	friends	an approach
	a success	interest in	measures
	a journey	a physical examination	your turn
	way		part in ~
	the best use of		
	his decision		
	a contribution		
	choices		
	friends		
	certain/sure		
	the challenges		
	sense		
	up the market		
	the best guesses		

2. 논의

본 연구와 관련하여 코퍼스 어휘 활용상 몇 가지 논의점이 있다. 첫째, 영어 교육과정과 수능간에는 상관관계가 높다. 이는 수능시험이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교육과정상 영어과 교육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능 문제의 유형이나 난이도 및 제 변인에 대한 예측, 분석만이 아니라 어휘면에서 교육과정상 선정된 어휘 사용 정도에 대한 검색도 필요하다고 본다. 즉, 구현과 유형 및 어휘 반복율 등을 통해 1 차적으로 어휘 사용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어휘의 다양한 유형과 활용, 즉, 영어와 우리말의 대응관계, 어 형성의 원리, 외연적·내포적 의미, 단어 문법상 특성(word grammar), 단어간의 결합인 어휘적 뭉칫말, 의미상 다의성(polysemy) 등 수능 코퍼스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언어 기능과 마찬가지로 어휘 성취 기준(vocabulary/lexical achievement criteria)을 교육과정 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는 의도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소기의 교육목표를 주어진 기간 내에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둘째, 어휘가 단순히 단어들의 총합이라는 소극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겠다. 그와 같은 소극적인 생각이 그 동안 어휘 학습을 단순히 영어 단어를 암기하고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으로 여기게 했다고 본다. Nagy(1988)에 따르면, 어휘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은 영어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목적이며, 어휘력과 독해 능력간의 상관 관계가 높다고 피력했다. 또한, Richards 와 Renandya(2002)는 어휘가 언어 숙달도의 핵심적인 성분이며, 학습자가 여타 언어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해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동안 어휘 지도는 개별 단어의 의미 파악에 의존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자에 비해 영어 사용 능력을 높여주지 못했다. 이제 연어 지식을 언어 능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여 어휘 지도 단계부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money'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돈'으로 이해한 경우, 말을 하거나 쓰고자 할 때 활용 가능성(usability)이 크지 않다. 하지만 명사 'money'가 동사와 어울려 표 10 과 같이'동사+명사 연어'형태의 다양한 연어쌍을 뭉칫말(chunks)로 활성화하여 이해한다면, 읽고 듣기에서 뿐만 아니라 말하고 쓰는데 그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이 경우 명사 'money'는 기저어(base)가 되고 'make'와 같은 동사는 결합어(collocator)라고 한다.

표 10
명사 'money'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는 연어쌍의 예

결합어(collocator)	기저어(base)
advance, bank, borrow, change, circulate, deposit, earn, extort, hoard, invest, launder, lend, lose, make, pay(out), print, raise, recover, refund, repay, return, run out of, save, spare, spend, squander, transfer, waste, withdraw	(one's) money

실제로 학생들은 'money'라는 단어를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동사와 결합하여 다양한 연어적 표현을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된다. 즉, 우리말로 '돈을 벌다', '돈을 쓰다', '돈을 낭비하다', '돈을 이체하다','돈을 인출하다','돈을 저축하다''돈을 세탁하다' 등 표 10 에서와 같이 다양한 연어쌍(collocational pairs)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킨다면 연어 단위로 영어 사용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지금까지 개별 단어 중심 어휘 학습으로 학생들이 단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개별 단어 실력이 많아져도 영어 구사력이 낮은 이유라고 본다. Kim 과 Yoon(2008)은 85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측 가능한(predictable) 20 개, 예측가능하지 않은(unpredictable) 20 개의 연어 인식도를 측정한 결과, 전반적으로 대학생들의 연어 지식이 불충분하며, 특히 예측 가능하지 않은 연어에서 오류가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탈어휘화된 동사인 경우 우리말 연어와 영어 연어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

L1 연어로 인해 L2 연어의 오류를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하다'류의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동사 do 로 말하기 쉬우나 표 7,8,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do 이외에 make, take, have 등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학생들은 '~하다'류의 우리말을 동사 do 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영작이나 어휘 결합관계 테스트를 해보면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사실, 대학의 교양영어(실용영어)를 비롯한 영어교육도 비슷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본다. 단적으로 오늘날 중고등 학생은 물론이고 대학생들 대부분이 사전 사용을 하지 않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용하는 교재의 부록 혹은 주석에 개별 단어 설명에 의존하여 공부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고 일상화된 말을 할 수 있는 연어/뭉칫말 사전이 나오길 기대한다. 즉, 과거와 같이 개별 단어 암기로는 뭉칫말을 표현하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고, 그렇다고 통문장식으로 표현 중심의 사전을 사용하는 것도 학습자의 부담이 과도(overlearning)할 수 있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두 단어 이상의 어휘 뭉칫말로 의미 단위를 이해하는 훈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영어 독해도 위 논의에서 살펴본 연어적 접근방식에 의한 어휘중심 학습 활동으로 개별 단어 중심의 어휘 학습의 많은 한계점과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Six minutes to six,/ said the great round clock/ over the information booth/ in Grand Central Station.// The tall young Army lieutenant/ who had just come/ from the direction/ of the tracks/ lifted his sunburned face,// and his eyes narrowed/ to note the exact time.// His heart was pounding/ with a beat/ that shocked him/ because he could not control it.// In six minutes,/ he would see the woman/ who had filled/ such a special place/ in his life/ for the past thirteen months,// the woman/ he had never seen,/ yet/ whose written words/ had seen with him/ and sustained him unfailingly.// (대학교양영어교재 Reading in English 의 'Appointment in Love' 중에서, p. 77).

개별 단어 중심 어휘 학습 방법은 수용 기능(receptive skills)은 어느 정도 향상되어도 표현 기능(productive skills)이 제한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원어민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꺼려하고 쓰지 못하는 절름발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수용 기능 중심의 읽기와 듣기 평가인 TOEIC 시험에도 상당한 점수를 받아도 말하고 쓰지 못한다는 지적을 자주 듣게 된다. 따라서, 수능의 어휘력/어법 평가 부분에서도 이와 같은 어휘적 뭉칫말과 같은 연어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개발되어야 하고, 110 단어 내외의 지문으로 출제되는 현 수능 문제 형식도 다양한 어휘 수의 문항으로 출제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장문 형태의 문제를 다소 늘리는 가능성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V. 결론

우리나라에서 수능이 미치는 영향은 학교 현장 영어교육 뿐만 아니라 사교육 영어 현장에서도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쉽게 출제되면 쉽게 출제된 대로 어렵게 출제되면 어렵게 출제된 대로 그 파장은 적지 않았다. 수능의 난이도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간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 학습자의 측면에서 시험의 난이도를 체험하는 것은 먼저 어휘와 문법 구조일 것이다. 어휘는 모든 언어 학습의 기본이며 본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단어의 의미를 암기하는 것은 독해나 듣기에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교육과정에서도 영어의 네 기능을 고루 지도하고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휘지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어와 같은 어휘적 뭉칫말은 문법적 구조와 결합하여 문장 속에서 다양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수능에서의 연어적 쌍의 어휘적 뭉칫말이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고 수능시험에 교육과정 운영과 교과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수능의 어휘 선택과 활용도를 검색하는 등 보다 철저한 문항내 어휘 검토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효과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은 주로 이와 같은 어휘 뭉칫말화의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Harmer, 2007).

다행히도, 최근에 어휘적 접근방식(Lexical Approach: LA)에 근거한 교재들이 시중에 점점 증가하고 있고 현장 영어교육도 과거와 다소 달라지고 있다. 또한, 개정 제 7 차 교육과정과 앞으로 예상되는 수능영어 대체시험의 일환인 국가영어능력평가에서는 좀 더 확장된 어휘 개념인 뭉칫말 교수 학습 활동과 이에 대한 평가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언어 기능과 마찬가지로 어휘 성취 기준이 교육과정 내용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단어 목록(word list) 제시만으로는 다양한 어휘적 표현을 담아낼 수 없다고 본다. 끝으로, 현재 중고생은 물론 대학생들의 어휘 학습 실태는 아직도 대부분 개별 단어 중심인 점을 생각할 때, 앞으로는 교실활동 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에서도 함께 어울려 어휘 궁합을 이루는 뭉칫말, 즉 연어성 (collocability)에 대한 연구와 지도가 더욱 활발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권오량. 부경순, 신동일, 이진경, 현석분. (2006). *초등 영어교육 10년의 성과 분석을 통한 초중등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서울: 교육부.

권인숙. (2002).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코퍼스 언어학적 어휘 비교 분석. *영어교육, 57*(4), 409-444.

권인숙. (2004). 한국 중학교 6차 및 7차 교육과정 영어교과서의 코퍼스 언어학적 어휘 비교 분석. *외국어교육, 11*(1), 211-251.

김낙복. (2005). *연어 중심 영어 어휘 교수 학습에 관한 연구.*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전.

김낙복. (2007). 연어 중심 어휘 지도가 고등학생의 영어 독해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영어어문교육, 13*(3), 157-176.

김미자. (2001).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과 고등학교 공통영어 교과서의 문항유형 비교, *영어교육, 56*(4), 349-371.

김보영. (2008).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어휘 분석: 고빈도 동사+명사구 연어중심으로.*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김성식. (2007). 코퍼스와 영어교육. *영어교육, 62*(2), 281-307.

김지영. (2006).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고빈도 동사에 관한 코퍼스 기반 연구: 'get, make, take'의 의미갈래와 연어를 중심으로.*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대학영어교재편찬회 (편). (2005). *Reading in English*. 서울: 도서출판 동인.

성윤미. (2004).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영어어문교육, 9*(2), 213-241.

오준일. (2002).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 시행 방안 세미나: 외국어(영어) 영역 토론 2* (연구자료 ORM 2002-13).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용훈. (2007). *NLPTools를 이용한 코퍼스 분석과 활용: 언어학, 영어교육, 그리고 영어교재개발에서의 활용.* 서울: 케임브리지.

이은주. (2008). 영어교육과 응용언어학 분야에 수행된 코퍼스 기반 연구의 분석. *영어교육, 63*(2), 283-306.

이재희. (2001).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의 총체적 개선 방향. *영어교육, 56*(2), 333-364.

이정원, 김낙복. (2005). 연어 중심 어휘 지도가 영어 어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 60*(2), 111-135.

장경숙. (2004).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읽기 난이도 예측 모형 개발. *외국어교육, 11*(1), 111-130.

최종욱. (2000). *영어과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현태덕. (2007). 연어 학습이 영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현대영어교육, 8*(1), 191-209.

Benson, M., Benson, E., & Ilson, R. (1997). *The BBI dictionary of English word combinations*. Philadelphia, MA: John Benjamins.

Carter, R. (1998). *Vocabulary: Applied linguistic perspectives* (2nd ed.). London: Routledge.

Crowther, J., Dignen, S., & Lea, D. (Eds.). (2002). *Oxford collocations dictionary for students of Englis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armer, J. (2007). *How to teach English*. Essex, England: Person Education Ltd.

Hill, J., & Lewis, M. (1997). *LTP dictionary of selected collocations*. Hove, England: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Jin, K., & Park, C. (2004). The prediction of English item difficulty in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English Teaching, 59*(1), 267-278.

Jin, K., & Park, C. (2005). Factors related for the difficulty for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English items. *English Teaching, 60*(3), 17-26.

Kim, H., & Chun. S. (2008). Fostering lexis awareness and autonomy by corpus-based data-driven learning. *English Teaching, 63*(2), 213-235.

Kim, H., & Yoon, H. (2008). Effects of predictability in L1 on the use of L2 verb-noun collocations. *English Teaching, 63*(2), 237-259.

Kim, N. (2003). An investigation into the collocational competence of Korean high school EFL learners. *English Teaching, 58*(4), 225-248.

Kim, N. (2004). A collocational analysis of Korea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and suggestions for collocation instructi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0*(3), 41-66.

Kim, N. (2008). Teaching in chunking: Facilitating English proficiency. *Modern English Education, 9*(1), 30-51.

Lee, J., & Kim, N. (2005). The effects of the collocation-based vocabulary instruction on English vocabulary development. *English Teaching, 60*(2), 111-135.

Lewis, M. (1997). *Implementing the lexical approach: Putting theory-into practice*. London: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McEnery, T., & Wilson, A. (1996), *Corpus Linguistic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Nagy, W. E. (1988). *Teaching vocabulary to improve reading comprehension*. Urbana, IL: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Richards, J., & Renandya, W. A. (Eds.). (2002).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An anthology of current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and College

김낙복
나사렛대학교 영어학과

330-718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456 번지
Tel: (041) 570-1514
Email: knb2030@kornu.ac.kr

Received in October, 2008
Reviewed in November, 2008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ember, 2008